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빠르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산자원봉사

월간 / 제113호

2007년 4월 1일

<http://vt.busan.go.kr>

자원봉사 상담 및 문의는 국번없이 1365

발행인 : 류기형 편집인 : 김용명 발행처 :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등록번호 : 부산라 01145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273-20 상수도사업본부 10층 전화 : (051)864-1365 팩스 : (051)888-6907 편집·인쇄 : 국제신문

2007 상반기 봉사단 대표자 회의 개최

3월 26일, 124개 봉사단 대표 참석해 200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등 협의



지난달 26일 부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124개 소속 봉사단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센터의 사단법인화를 비롯하여 자원봉사관련 교육,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자 배가운동,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등록 등에 관한 것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대표자들에게 2005년부터 시 직영체제로 운영되어 오던 센터가 1월 창립총회를 거쳐 지난 2월 사단법인체제로 거듭나게 된 것을 공지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센터가 보다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면서 전문적인 자원봉사 중심기관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내었다. 또한 재난구호활동 강화를 위한 재난봉사협의회 가입단체를 추가 모집했다. 협의회는 예기치 못한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작년 7월 발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자원봉사 최우수 도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 부산의 저력을 살려 자원봉사자 20만이란 목표를 정했다. 이를 위해 사이버상에서 평생 통합관리 될 수 있는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상의 회원가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에 공감하고 봉사자 증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변혁기 맞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운영형태 정립 등

지난 3월 중에 부산지역 자원봉사센터 소장, 실무자, 담당 공무원들이 올해 센터운영을 위한 안건을 두고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다. 인력충원과 운영형태, 회원증대, 보험가입 등이 주요 안건이었다.

먼저 교육 및 D/B구축을 위한 전문인력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오는 6월까지 공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코디네이터가 행정자치부 교육까지

마쳐야 한다.

운영방향 정립을 위해 법인설립, 비영리법인(단체)위탁 또는 직영 등 운영형태도 확정해야 한다.

사이버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상에서 구, 군별 인구 대비 20%이상 가입 회원 증가라는 목표를 세웠다. 거기에다 비영리민간단체까지 보듬기 위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폭을 넓히고, 보험가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연합 공개 경쟁입찰도 계획하고 있다.

블런티어 팀장회의 열려

부산아시아드블런티어에서는 지난달 28일 올해 사업의 활성화 및 상호협력력을 위해 25개 팀장회의를 개최했다.

국제행사 전문봉사단으로 특성화시키고 창립 5년에 걸맞는 성숙한 자원봉

사활동 전개를 통해 거둬나가는 것이 블런티어의 올해 목표다. 이를 위해 회원확대와 체제정비, 회원자질 향상 교육 실시, 시민과 함께 하는 전체활동과 주제별 팀별활동 등이 주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다.

봉사자 모집, 연계 지원

활력이 넘치는 봄기운을 타고 부산지역 곳곳에 행사와 활동이 줄을 잇고 있다. 더불어 바빠지는 곳이 자원봉사센터이다. 자원봉사자 요청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부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난 한달간 부산지방경찰청의 경찰관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을 비롯하여 조선통신사 한일문화교류추진 행사를 위한 서포

터즈, 제5회 KNN환경마라톤대회 어린이 이름표 달아주기, 부산시보육정보센터 도서정비작업,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 자원봉사자를 모집 또는 연계 지원을 하였다.

특히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찰관 전화 친절도 점검을 위한 봉사자 모집지원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10여차례에 이르고 있다.

동정

강원도자원봉사센터 실무자 및 관계 공무원 2명이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관한 정보교류차 지난달 5일 우리센터를 방문했다.

지난달 9일 88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개최된 2007 광주광역시 자원봉사 정책토론회에 김용명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소방방재청 주최로 지난달 14일부터 1박 2일간 개최된 제3회 민관합동 안전문화 혁신 연찬회에 공은숙팀장이 참석했다.

지난달 23일 부산시립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김만숙 팀장이 자원봉사 출장교육을 실시했다.

자원봉사 사이버리포터

모집안내

사이버 공간에서 자원봉사 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온라인 세계에서 좀 더 자유롭게 자신만의 자원봉사공간을 만들어 나갈 사이버리포터에 도전하세요

- 모집기간 : 2007년 4월 14일까지
 - 모집대상 :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회원
- 인터넷 및 PC활용이 능숙하고 주기적인 활동이 가능한 자 10명 선착순 모집 마감



문의 :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자세한 내용은 vt.busan.go.kr 홈페이지 참조) 전화/051-864-1365 E-mail/bc1365@chol.com

자원봉사 관련자료 기증 받습니다!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빠르게 확산되는 자원봉사에 발맞춰 보다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자료 및 정보제공을 위해 자원봉사 관련자료를 기증받고 있습니다.

- ♥ 목적 : 자원봉사도서관의 소장자료를 확충함으로써 전문화, 특성화된 자원봉사 자료 및 정보제공을 하고자 함
- ♥ 종류 : 자원봉사관련 도서, 논문, CD 및 각종 시청각 자료 등



*기증한 자료는 자원봉사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 기한 : 제한없음
- ♥ 비치 :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부설 자원봉사도서관
- ♥ 문의 :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 (051)864-1365

안전복지 구현을 위한 풀뿌리 민간단체의 역할



초당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문현철

선진국의 안전복지문화

필자는 재난방재행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해외 여러 나라를 방문한적 있다. 그 중 독일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교 부속병원 응급의료센터와 역시 독일의 바이에른주 뉘른베르크시 재난방재과와 캐나다의 밴쿠버시 소방서, 경찰서,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의 시민단체를 방문하여 많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결국 선진국인가 아닌가의 척도는 재난방재행정이 얼마나 정밀하게 잘 구축되어 있는가?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복지”의 문화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으며, 국가의 재난방재행정에 국민들이 얼마나 잘 따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가? 등이 그 척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방재행정기관들의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산하의 방재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방재행정기관과의 연계성, 공조성, 그리고 인근 지방정부의 방재행정기관 상호간의 공조성, 연계성 그리고 군부대, 경찰, 유관행정기관, 공공기관간의 협조, 공조 여부 등이 매우 치밀하게 잘 짜여져 있고, 특히 재난 예방을 위한 제도가 매우 잘 발달된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사회라는 것이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의 민,관이 매우 잘 협조가 되며, 그 후 재해구호 체계, 그리고 재해발생후 사회복지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작동되어 재난부서와 사회복지부서가 한 바퀴로 굴러 간다는 사실이다.

독일이나 캐나다의 경우 아이 혼자 집에 있거나, 어린이가 혼자 자동차가 다니는 길가에 혼자 나오면 그 부모가 처벌 받을 정도로 어린이 안전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고,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들은 비상시 사회복지 행정기관과 직접 긴급히 통신이 가능하도록 장비가 구축되어 있고 노인이 외출시에는 외출표지를 때문에 하도록 함으로써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이 혼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이른바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더 나아가 안전한 복지사회의 구현 즉 안전복지사회체제를 매우 정밀하게 구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일본 특유의 지진과 태풍에 대비한 안전복지체제가 매우 정밀하게 짜여져 있기로 유명한 나라이다. 일본은 재난예방을 위한 방송체제는 물론이고 유치원에서부터 재난예방 안전교육이 매우 잘 정착되어 있고 지진이 매우 빈번한 나라이므로 실제 태풍, 지진이 발생한 경우 대피에서부터 주택이나 주요 시설이 파괴된 경우 재해 구호 복지체계가 세계가 부러워할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다. 슈퍼마켓에 가면 15일을 외부와 고립되어서도 버틸 수 있는 비상식량, 비상 생활필수품 등이 하나의 상품처럼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고, 좁은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교통안전문화가 잘 구축되어 있고, 특히 응급의료 시스템도 매우 우수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안전복지 구현을 위한 풀뿌리 민간단체의 역할

제주도에 전력을 공급하는 해저 케이블의 절단사고로 인한 제주도의 정전사태,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의 연쇄추돌 교통사고, 고층 아파트 화재, 아시아나항공기의 우박 속에서 비행중 레이더 탈락사고, 김해공항 중국항공기 추락사고,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 봄이면 발생하는 산불, 고성 산불 등 우리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재난 등은 오늘도 우리의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다.

각종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청의 모 검사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고, 종합병원 수술실에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한국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아직도 심각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안전불감증을 극복하고 “안전복지”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에 대한 대국민적 교육” 시스템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2006년 10월의 경기도 고층아파트 화재 사건을 분석하면서 우리 서로 과연 자기 집에 소화기를 생활의 중요한 필수품으로 설치하고 있는지, 소화기의 특성을 아는지, 그 보관방법을 아는지, 작동방법을 아는지, 실전에 대비하여 가족들과 소화기 발사 실습을 한 경험이 있는지, 고층에서 탈출하기 위한 대책 즉 완강기나 비상용 로프를 설치하였는지, 그 것이 여의치 않다면 고층에서 탈출할 수 있는 미니 비상낙하산이

라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우리의 주거 문화 중 일상화 되어가는 이러한 고층아파트에 대한 재난 방재행정기관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그러한 장비들을 가가호호 비치하도록 지도와 감독·규제 단속을 하는지에 대하여 “안전복지” 운동 측면에서 진지하게 반성해 보아야 한다.

“안전복지” 운동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공부과목이라는 사실을 자라나는 모든 학생들에게 주시시켜야 하고 그러한 교육풍토가 되어야 한다.

“안전복지”가 그 위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평화로운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안전복지에 대한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서 생활 속에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전복지 현황에 대한 전국적 모든 학교단위를 소위 검열하여 그 진행정도를 평가 받고 시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에서는 그러한 안전복지를 교육 훈련시킬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야 하고 인공심폐소생술 등 매우 중요한 위기상황에서의 인명구조 등에 관한 과목들을 졸업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복지에 관한 교육적 토대를 철저히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토대에서 성장한 고교생, 대학생들을 고려화 사회에 있어서 안전문화 전파와 안전복지운동의 주역으로 키워서 안전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농어촌 지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자원봉사를 하도록 하고 안전복지에 대한 도농간에 청년과 노년간에 상호보호와 원조의 보완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도시, 농어촌 각 마을의 지역유지, 원로들을 “민간안전복지” 보안관으로 임명, 위촉하여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안전복지운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난방재행정기관과 사회복지행정기관은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자연재해 등은 결국 그 지역단위의 피해가 크고 이재민 등의 재해 구호 역시 지역단위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각 직장단위의 민방위대 향토에 비군대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므로 이러한 조직들을 “직장 안전복지”의 추진동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단위들을 상시평가하고 시상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네 번째, 방재의 날이 있기는 하지만 전국단위로 전국민을 통제하는 훈련은 매일 실시하는 민방위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방위 훈련의 일부분을 전국민, 지역, 직장단위 “안전복지” 훈련의 날로 활용하여 매일 안전복지가 실습되고 잘 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 번째, 민간단위의 지역 안전복지 추진 및 운영자, 담당자 등에게 포상 등을 통하여 그 추진에 대한 성과를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고 그러한 안전복지에 대한 포상, 상훈은 가장 명예스럽게 여기는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그 것은 곧 가문의 영광이며, 개인의 영광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KBS에서 실시중인 “119대상”이라는 프로그램 등을 소방서 소방관 위주로 포상하지 말고 전국민중 “안전복지” 문화에 큰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확대하여 안전복지 추진과 그 공헌을 사회적으로 크게 알리고 홍보하는 활력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난달 14일부터 1박 2일간 개최된 소방방재청·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주최 제3회 민간합동 안전문화 혁신 연찬회에서 발표된 “안전복지 구현을 위한 풀뿌리 민간단체의 역할” 부분을 발췌, 게재합니다.

진행되어야 한다. 그 것은 안전복지의 교육에 대한 생활화이고 안전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를 지켜준다는 인식을 확산하여야 한다.

김홍식 전 장성군수는 전국적 혁신의 상징이 된 “장성아카데미”를 발전시키게 된 동기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 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을 교육이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교육은 결국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렇듯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훈련은 우리 사회를 진정한 “안전복지”의 사회로 변화시켜 우리에게 한 평생 안전하게 평화로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요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안전복지에 대한 대국민적 교육과 홍보 훈련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복지”를 위한 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초·중·고교에서는 아예 “안전복지”라는 교과목을 설강하여 그 어떤 과목보다도 더 중요시하여야 하고 우리의 고교시절 교련수업을 받고 교련 검열을 받은 것처럼 안

칼럼

지역과제에 대해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인식 위에 민간단체간 협력체제 구축



이 경 원

부산광역시새마을회 사무처장

‘시민사회시대’, ‘자원봉사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엘빈 토플러나 피터 드러커 등 미래학자들의 예견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7년 이후 시민사회단체는 그 양적, 질적 측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0년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제정하였고, 2005년에는 국민 개개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기 위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제도적 근거에 힘입어 사회 각 분야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양한 자원봉사활동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한때 시민사회운동에 대해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았지만, 최근 ‘풀뿌리 운동’을 표방하는 민간단체들의 출현은 민간단체 활동이 사회적 이슈보다 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 운동으로 변화되고 있다 하겠다.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정부에 의해서가 아니라 좋은 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베버리지 경의 주장은 바람직한 미래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기본적인 책무를 강조한 것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는 수많은 민간단체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대규모 조직을 지향하기 보다는 사업목적이나 방향에 따라 소규모로 조직되어 있으며,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이 제각각 활동한다면 인적, 물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자원봉사센터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내 민간단체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구상과 사업경험, 정보공유, 실무자교육,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활동 등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인 운영과 동시에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원활한 정보교환과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아가 단체 상호간의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동시에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공동 활동의 기회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속담처럼 단체들의 활동 하나하나가 개별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궁금해요

부산 스카이라인 더 높게 더 높게 100층 이상 초고층빌딩 4개 이상 추진중



센텀시티에 세워질 부산월드비즈니스센터 조감도

10년후 부산의 스카이라인은 어떻게 변할까?

최근 부산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초고층 빌딩건설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올 초 북항재개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면서 100층, 120층의 랜드마크형 빌딩건설 계획을 밝혔다.

이로서 부산에서 건립 추진 중인 100층 이상 초고층빌딩은 중구 중앙동 옛 부산시청 자리에 건설 중인 제2롯데월드(107층)와 지난해 착공을 시작한 해운대구 센텀시티내 부

산월드비즈니스센터(106층, 51층)를 포함 4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국시·도중 가장 활발하다.

서울과 인천 등 전국에 6개의 초고층빌딩 건립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은 부산이 유일하며 건물건설 의지도 가장 높은 상태이다.

그러나 부산시내 사무실 공실율이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공급이 지역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과 지역상권의 상생 및 도심조경과의 조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초고층빌딩 건립에 대해 지역경제발전의 상징과 더불어 경제부양, 관광산업연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유치를 권장하고 있다.

권민혁 명예기자

World News

▶▶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폭력금지활동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파키스탄과 코소보에서는 UNV를 비롯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 금지 및 여성들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얻은 권리와 성취한 결과를 알리는데 힘쓰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그만두는 것은 꽃을 사는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꽃을 사는 것이 전부임니

다.’라는 구호 아래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처벌을 적게 받는 범죄 중의 하나로서 긴급한 사회현안이다. 또한 남성과 동등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매일 꽃을 사고 가꾸는 것과 같은 노력의 필요성을 행사참가자는 역설했다.

▶▶ 부탄의 발전을 돕는 호너우도와 지단

부탄의 오렙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세계적인 축구스타 AC 밀란의 스트라이커 호너우도와 전프랑스 국가대표팀 주장 지네딘 지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 두 세계적인 축구스타는 부탄에서 가난을 퇴치하는 운동을 위한 펀드조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운동을 통해 자원봉사자들

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작은 나라인 부탄 사람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기술발전을 위한 교육확대, 농업기술 발전 등을 꾀하고 있다. 또한 비정부기구인 타라야재단에서 이 운동을 위한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이 재단은 아이들을 위한 유니폼과 신발 그리고 상수도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사제공: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VISO 이희준

세계문화 체험교실 운영

외국인이 자원봉사로 강의

여행을 가지 않고도 외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오는 2일부터 운영되는 부산국제교류재단 주최 ‘세계문화 체험교실’이 개강되기 때문이다. 체험교실은 일본(월), 중국(화), 터키(수), 베트남(목), 러시아(금) 등 5개 반이 요일별로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주1회 3개월 과정으로 일상회화를 배우는 외국어교실과 타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문화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퇴근시간 이후인 오후 6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어 직장인들도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음식 만들기, 전통문화 및 대중문화 엿보기 등 매월 1회씩 진행되는 문화체험 테마를 외국인 자원봉사 강사와 참가자들이 함께 협의하여 진행함으로써 재미와 활력을 더한다.

올해 상, 하반기 각 한번씩 운영될 체험교실은 부산시민 대상 무료 참가 혜택과 부산체류 외국인 자원봉사 강사라는 특색이 어우러져 즐거운 세계 문화체험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봉만평

김명진



부산국제연극제 자원활동가 모집마감

오는 5월 5일부터 15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되는 2007 부산국제연극제 진행을 도울 자원활동가 모집이 지난달 23일 마감되었다. 이들 중 면접과 교육을

거친 130여명의 최종 합격자들은 오는 21일 경성대 콘서트홀에서 발대식을 가지고, 국제협력팀 등 5개 팀에서 연극제 진행을 돕게 된다.

소개합니다

단체 회원

손내음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점자도서관. 이곳을 수시로 찾는 대학생들이 있다. 시각장애인 봉사단체 “손내음(회장 유진희)” 회원 14명이 그 주인공. 손내음은 부산시 자원봉사센터 주최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집역봉사팀 참가자들을 주축으로 작년 7월 발대,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점자도서관을 만들기 위한 워드입력, 점자입·출력, 점역물 분류 외에도 장애우들과의 자연스러운 연계 활동이 주 활동이다. 지난 2월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위한 점자 투표안 내문 7,400부도 이들의 작품이다. 부산시장 선거물 점자자료 준비에도



활동했다. 국제변호사 준비생을 위한 두꺼운 법종류 영어원서 입력작업은 잊지 못한다. 대학생 장애우들과 취업, 진로 등 또래의 고민거리도 함께 나눈다. 꾸준한 봉사단 활동을 위해 신입생들과 남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또한 기다리고 있다. 활동을 통해 장애우와 일반인들을 동일하게 여기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 그래서 다양한 장애를 가진 부산의 대학생 100여명을 봉사수혜자가 아닌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한다. 손내음의 꿈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세상”을 이루고 싶기 때문이다.

신규봉사단 자원봉사 소양교육

부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난 달 30일 부산시가족자원봉사단 등 17개 신규봉사단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소양교육은 한국자원봉사아카데미 이대근 원장의 ‘자원봉사의 의미’와 예사랑인성교육원 김인숙 원장의 ‘인간관계훈련’에 대한 특강을 비롯하여 자원봉사 홍보영상 상영, 봉사단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토의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새롭게 시작하는 봉사단 활

동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앞으로의 활동방향 정립과 회원 서로간의 협력에 초점을 두었다. 자원봉사 중심기관으로 자리잡아가면서 신규 봉사단 등록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분기별로 이들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봉사단이 아니라더라도 기존 봉사단의 신입회원이 교육 받기를 원하면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봉사단 교육

2. 봉사단 활동



◀ 글로벌일본어봉사단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찰관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를 위해 전화상담을 통한 경찰관 친절도 확인 봉사활동을 펼쳤다.



◀ 벽화전문봉사단

지난 2월말부터 3월까지 연산동 소재 아동양육시설인 ‘중덕원’의 식당 내벽에 동심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밝고 예쁜 벽화를 선물했다.



◀ 소금꽃봉사단

15년 이상 매일 펼치고 있는 장애우들과의 나들이 기금마련을 위한 하루차집을 지난달 18일 부산역 주변 파레스커피숍에서 개최했다.



◀ 숲체험교실

지난달 31일까지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숲체험교실’의 자원봉사 강사 10여명을 모집했다.



◀ 아우름봉사단

매월 정기적으로 지정면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 지난달 6일 북구 삼락동 소재 어르신시설인 ‘천사의집’에서 급식봉사를 했다.

| 금강산 평화기행기 |

꿈에 그리던 금강산을 다녀와서

부산시자원봉사센터 부산항을사랑하는모임2기 회장 최영애

황홀한 마음이 앞서기에 금강산-운정각을 소개하려고 하니 어떤 말로 표현해야 할지 망설여지기만 합니다. 지난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시민단체가 연대하여 “평화기행”이란 대명제 하에 기회를 얻게 되어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지면만 할애된다면 순간순간들을 사진과 함께 열거하겠건만 한정된 지면관계상 대략적인 요점만 간추려보겠습니다. 2박3일의 금강산 탐방은 내 인생 역사의 한 장을 남기게 되었으며, 남북통일이 빨리 와야 되겠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첫째, 한민족으로서 언어가 같고 모습이 같은 사람들이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 둘째, 평양모란봉 교예공연단을 관람할 때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 절대절명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셋째, 인민군복장, 부동자세,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생각해 했습니다. 넷째, 금강산 비봉폭포, 구룡연폭포, 기암절벽..... 그야말로 금강산 찾아가자 1만 2천봉이었습니다. 다섯째, 만물상 산행. 만가지 형상이라 하여 이름이 만물상산입니다. 금강산은 4계절마다 이름이 다르다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묵은 선상해금강호텔은 세계에서 자랑할만한 곳입니다. 삼일포 해안도로며 때문지 않는 곳들 요소 요소가 천하일품들이었습니다. 평화통일이 되면 모든 국민들이 자유로이 여행을 하며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면서 미려하구나 금강산 탐방기를 맺었습니다.

| Best 봉사자 |

강 유 (진) 민중의술연합자원봉사단

동래구 수안동에 위치한 민중의술연합 상설치유봉사센터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총21회 74시간의 민중의술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조정희 (선) 대한주부클럽부산시회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소비자센터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총8회 64시간의 소비자 상담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김흥철 (미) 민중의술연합자원봉사단

동래구 수안동에 위치한 민중의술연합 상설치유봉사센터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총16회 56시간의 민중의술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상에서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가장 많은 봉사자입니다. 통보된 봉사활동 실적 등록 기준일은 3월 23일입니다.



1 강서구자원봉사센터

강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조성혜)는 지난달 7일 대저1동사무소와 연계한 강서구적십자회가 장애인과 거동불편 어르신가정을 방문, 빨랫감을 수거해 세탁봉사를 했으며, 24일 대저차량사업소봉사단이 강서구내 지하철역 주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5 동구자원봉사센터

동구자원봉사센터(소장:배영호)에서는 매주 월요일마다 서면 파리그라쌍에서 사랑의 빵을 지원받아 미애원 등 각종 시설과 소외이웃에게 전달하는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3월 한달간 홀로어르신 다섯 분께 생신상을 차려드렸다.

2 금정구자원봉사센터

금정구자원봉사센터(소장:박종필)에서는 지난달 9일 발대한 07-1학기 대학생멘토봉사팀이 14, 15일 4개의 공부방 개강식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15일 열린 제1회 소그룹지도자 간담회를 통해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류했다.

6 동래구자원봉사센터

동래구자원봉사센터(소장:구철수)에서는 지난달 12일 무량수요양원에서 50만원 상당의 물품후원과 청소 등 한국전력동래지점 70주년 기념 노사합동 봉사에 이어 16일 서울기술통신부산지점봉사단이 어르신들과 경주온천나들이를 했다.

3 기장군자원봉사센터

기장군자원봉사센터(소장:지복순)에서는 지난달 2일 좌천·월내역 역무원들로 구성된 코레일좌천봉사단 대상 자원봉사기초교육을 실시했으며, 13일과 29일 수기회 회원들이 기장관내 5개 읍면 노인정을 순회하며 수지침 봉사활동을 펼쳤다.

7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

부산진구자원봉사센터(소장:유영란)에서는 지난달 10일 홀로어르신 대상으로 부산시교육청봉사단의 집수리(2세대)와 해피북봉사단의 반찬조리 및 전달(6세대)에 이어 15일 두레박의 은빛노인학교 입학식 풍물봉사와 나눔장터 물품을 정리했다.

4 남구자원봉사센터

남구자원봉사센터(소장:황영식)에서는 지난달 10일과 24일 그루터기봉사단이 신애재활원 장애아들의 사회적 및 체력단련 축구교실을 다시 열었으며, 모자봉사단 '아름다운가족'을 임마누엘복지공동체의 무료중식급식봉사와 연계시켰다.

8 북구자원봉사센터

북구자원봉사센터(소장:정인선)에서는 지난달 27일 상반기 발마사지교육 개강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북부산지사, 부산정보대학, 우리은행, 한전북부산전력소, 한솔병원 등 협약식을 한 1차 기업봉사단들이 시설과의 결연 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9 사상구자원봉사센터

사상구자원봉사센터(소장:홍봉선)에서는 지난달 4일 주부봉사단이 사상달집축제에서 자원봉사 홍보 캠페인을 펼쳤으며, 19일부터 이틀간 신라대학교에서 봉학기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30일 자원봉사기초교육을 실시했다.

13 연제구자원봉사센터

연제구자원봉사센터(소장:하만호)에서는 지난달 10일 청해봉사단과 동래중앙교회6남선교회가 아동시설 중독원이 후원자로부터 무상임대 받은 텃밭의 수확물인 배추, 무 등으로 담근 김치를 이웃과 나누는 "담과 열매로 맺는 사랑나눔" 행사에 참가했다.

10 사하구자원봉사센터

사하구자원봉사센터(소장:정규명)에서는 매월 3주 토요일을 "사하 자원봉사의 날"로 정하고 순회 환경정화활동을 펼치기로 한 후, 지난달 17일 첫 활동으로 사하가꾸기, 건국중문화재답사반 등 100여명이 다대포해수욕장과 물운대공원에서 활동했다.

14 영도구자원봉사센터

영도구자원봉사센터(소장:김귀자)에서는 지난달 2일 센터 강의실에서 노인일자리사업과 병행해 노인이 노인을 보살피는 노-노케어사업의 발대식을 가졌으며, 27일 영도구청에서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는 15명의 위원이 참석해 올해 사업을 논의했다.

11 서구자원봉사센터

서구자원봉사센터(소장:정운주)에서는 지난달 25일 대학생자원봉사팀이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된 KNN환경마라톤 행사에 의료지원서비스 봉사를 했으며, 지역봉사단이 매주 3회씩 지역내 주택가, 도로변, 등산로 등에서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5 중구자원봉사센터

중구자원봉사센터(소장:최상수)에서는 지난 1월에 발대한 아름봉사단이 매월 셋째 일요일마다 양산에 위치한 장애인생활시설 무궁애학원에서 미용봉사를 비롯해 장애인 돌보기, 시설내 환경정화활동과 함께 회비를 모아 생활필수품도 후원하고 있다.

12 수영구자원봉사센터

수영구자원봉사센터(소장:김양자)에서는 상호 협력을 위한 관내 자원봉사기관 실무자 간담회에 이어 놀토 청소년 광안리해수욕장 환경정화, 실종아동관련 KBS시사터치 촬영도움, 신부산교회 무료급식소 노숙자 200여명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다.

16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

해운대구자원봉사센터(소장:박흥일)에서는 지난달 8일 새롭게 발대한 해운대한·일문화교류봉사단이 목요일마다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으며, 13일 해성노인대학 입학식에 이어 올 한 해 동안 해운대구청 행복나눔과 연계, 장애인문화활동을 지원한다.



아름다운 사람 - 김 화 자

자원봉사는 나의 직업



봉사활동도 직업이 될 수 있을까? 금전적인 보상 대신 더 큰 보람과 사랑이 주어지는 봉사활동을 직업처럼 여기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 화자(60)씨를 만났다.

그는 '유엔기념공원가꾸기봉사단' 과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5기' 의 회장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비를 입고서라도 활동한다."는 기치 아래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유엔기념공원 환경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

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방문 때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매우 활기찼다. 봉사단 회원들과 농촌일손돕기도 하고 있다. 강서구와 기장군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달려가 배추, 시금치, 감자, 토마토 등을 씻고, 캐고, 다듬는다고 한다.

굵직굵직한 국제행사나 대회 참여 경험도 너무 많아 다 꼽지 못할 정도. 2002년 아시안게임 때 이란팀 안내데스크와 북한 갈매기응원단 활동, 2003년 대구U대회, 2004년 부산국제영화제 봉사활동에 이어 2005년은 어느 해보다 바빴다고 한다. 광복 60주년 기념 외교사절단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를 방문했다. 상하이 방문 때 "사람은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고 한 윤봉길의사의 글을 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95년 아파트 현옷을 수거해 노포동 남광복지관에 가져다 준 것이 봉사활동의 시작이었다. 동네 독거노인 반찬배달 후에 단체봉사활동에 뛰어들었다. 김씨의 얼굴에는 끊임없이 도전하는 열정이 가득했다. 몇 달 뒤 완공예정인 '낙동강 에코센터' 에서 '낙동강 환경지킴이 가이드' 로 활동하게 되어 요즘 교육을 받는 중이라고 한다. 몇년 전부터 가이드활동에 필수적인 영어를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 이기도 하다. 특히 봉사활동 때문에 매번 집을 비우는 자신을 항상 지원해주고 이해해주는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 했다.

윤봉길의사의 말처럼 봉사활동이라는 '이상' 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 김화자씨. "세상에 오게 된 걸 감사하며, 세상에 무언가를 보답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다."며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배수림명예기자

동북아통신

한국-연해주-일본 따뜻한 소식 들려와

강화도에 있는 중학교과정의 대안학교인 '마리학교'에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 온 고려인 4세 강보씨가 입학할 하기 위해 엄마와 함께 지난 3월 4일 한국에 왔다.



연해주 고려인 대상 자연농법교육

마리학교는 좋은 교과 과정과 환경, 자유로운 분위기 등 기존의 학교와는 전혀 다르다. 우리말을 전혀 못하는 15세 소년 보씨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열 계획이며, 다른 아이들은 러시아어를 공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작은 학교 안에서 동북아의 평화적 연대가 실현되는 것 같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야 하는 어려움과 그를 두고 가는 엄마의 마음은 걱정이 태산이지만, 보씨는 한국과 러시아를 아우를 수 있는 귀중한 존재이기도 하다.

연변의 조선족 배후단 학생도 마리학교에 입학할 하기로 되어 있지만, 비자가 나오지 않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중학교 과정은 전례가 드물고 더구나 대안학교의 입학은 더욱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지난달 18일과 19일, 연해주 우수리스크에서는 반가운 손님을 맞았다. 고려인 농업 정착지원 및 국적지원 모색을 위한 한국의

정부방문단이 머물렀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농촌공사, 국무조정실, 농림부, 농업진흥청 등의 관계자 9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연해주 고려인 농업정착지원사업 및 국적회복지

원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을 뿐 아니라 6개 마을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해 들었다. 정부와 민간단체의 일이 각각 다르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 고려인과 모국인 한국의 간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일본에서 온 즐거운 소식도 있다. 효고현에 있는 조선학교인 아마가사키 히가시 초급학교의 아이들이 동북아평화연대에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작년부터 동평의 도서보내주기사업의 대상학교로 선정되어 도서를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편지지에 서툴지만 또박또박 큰 글씨로 매일 읽고 있다는 말과 감사의 마음을 적었다. 담당자들은 보낼 때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이 편지로 말끔히 다 씻겨나가고 새 힘을 얻었다고 한다.

송상운

[필자는 우리센터 '우리들의이야기' 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세계청년봉사단(KOPION) 10기 해외파견봉사단원으로 선발, 2005년 2월부터 연해주 고려인을 돕고 있다. 현재 동북아평화연대에서 간사로 봉사하고 있다]

자봉자봉!

강서구자원봉사센터 강서구적십자회

세계적인 봉사단체 적십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나 재난재해 구호활동, 헌혈이 적십자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다. 막상 우리 주변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위한 적십자활동이 있다는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았다.

그 곳엔 강서구자원봉사센터 강서구적십자회가 목욕봉사를 하고 있었다. 아직 찬기운이 느껴지는 앞마당에 서 있는 목욕차량. 차량 옆면에 쪽머리를 한 할머니께서 즐겁게 목욕하는 그림이 눈에 띄었다.

한 분이 목욕하는 시간은 10~15분 정도. 봉사자 4명이 한 조가 되어 역할을 분담한다. 보통 6~7명의 봉사자가 10여명의

어르신들을 목욕시켜 드린다. 기초 화장품은 기본이고 속옷, 양말까지 준비해 둔다. 필요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소문이나 나자 목욕봉사 희망자가 많지만 다 해드리지 못하고 있다. 부산 전역을 다녀야 할 적십자 목욕차량이 한 대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 대표들이 매월 회의를 통해 봉사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세탁봉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홀로어르신이나 장애인 가정의 빨래감을 모아 세탁차량을 이용하여 빨래를 하고 있다. 특



히 집에서 하기 힘든 이불 등 큰 빨래감이 많다. 밑반찬도 만들어 40여세대에 전해주고 있다. 반찬을 만들기 힘든 부자(父子) 가정에는 개별적으로 더 자주 찾게 된다. 어르신-봉사자-아동·청소년 등 3대 결연봉사활

동도 하고 있다. 강서구에는 대저동 등 7개동에 17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공통적인 활동으로는 적십자 회비로 매월 10kg 70포 정도의 구호양곡과 라면을 어려운 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골고루 지원하기 위해 매월 다

른 수급자를 찾고, 가족 수에 따라 지원양도 조절한다. 지역별로도 회원들이 회비를 모아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어르신 온천목욕 나들이, 연말 이불후원, 설맞이 떡국·강정과 쌀 후원 등이 그 예. 경로잔치,

어르신 나들이, 건강교실 등 언뜻 보아 적십자와 어울리지 않을 듯한 활동도 많다. 일반인들이 낸 회비는 대부분 구호양곡이나 물자후원에 사용된다.

명성과 연륜을 가진 단체답게 후원연계활동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단위 적십자들은 회비 외에도 후원회나 후원단체를 발굴하고, 물질을 후원하는 준회원 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에 동참시키고 있다.

"회원들이 단체활동 외에도 개인적으로도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는 한선영 총무의 말처럼 적십자의 헌신과 희생정신이 지역의 일상 속에서도 그 빛을 발하고 있다.

김채경팀장
chaekg@empal.com

알림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운영 담당자 '태그기본교육'

- 일시 : 4/9(월) 10시
- 장소 : 부산동래여성인력개발센터 4층
- 대상 : 부산시, 구·군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종합관리 시스템 운영 담당자
- 강사 : 임봉(부산여성회 아동센터 사무국장)
- 내용 : 시스템 '자원봉사센터 소개' 콘텐츠 보강을 위한 태그교육 및 실습

자원봉사 활동사례 모집

- 기한 : 제한 없음
- 내용 : 사회 모든 분야의 자원봉사활동 사례
- 분량 : A45~6장, 글자크기 12포인트, 줄간격 160%
- 형식 : 활동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양식, 활동사진 또는 도표 첨부
- 게재 : 부산시자원봉사센터 간행물(월간) "부산자원봉사"
- 접수 : 메일로만 가능 (chaekg@empal.com)
- ※ 보내주신 사례는 자원봉사 발전을 위한 자료가 됩니다.

자원봉사 출장교육 서비스 지원 희망단체 신청·접수중

- 목적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움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고조 및 참여 유도
- 대상 : 자원봉사 교육을 희망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 내용 : ①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 강사 지원(20명 이상 출장교육 지원)
② 교육 내용 및 시간 등 세부내용은 희망 기관(단체)의 요청에 따라 조정 가능

자원봉사 평생관리시스템 가입단체 모집

- 대상 :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
- 혜택 : 자원봉사활동실적 평생관리 및 확인서 발급
※ 부산시내 단체 및 기관, 시설 소속 자원봉사자 활동실적을 평생 누계 관리해 드립니다. 상담 후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전화 (051) 864-1365 / 팩스 (051) 888-6907
이메일 bc1365@chol.com

■ 자원봉사지도자교육(3개월 과정) 참가자 모집

- 내용
 - ① 제3기 수지침자원봉사기초교육
4/9(월)~6/4(월), 매주 월요일
 - ② 제12기 아동·청소년상당교육
4/10(화)~5/29(화), 매주 화·금요일
 - ③ 제3기 케어자원봉사교육
4/12(목)~6/21(목), 매주 목요일
- 시간 : 오전 10시~12시
- 인원 : 각 20명(선착순)
- 문의 : 기장군자원봉사센터 ☎ 722-2604

■ 나눔가게 판매봉사자 모집

- 일시 : 월~금(시간조정 가능)
- 목적 : 기증 재화용품 판매 수익금으로 소외계층 돕기
- 문의 : 동구자원봉사센터 ☎ 441-7755

■ 자원봉사 체험사업 참가자 모집

- 내용
 - ① 가족봉사단 : 동래구내 가족단위 자원봉사 희망자(2인 이상), 4/28~6/23, 각종 시설방문봉사, 지역사회 및 연합활동 등
 - ② 어린이나눔교실 : 동래구내 초등학교4~6학년(20명), 4/28~11/24, 종이접기, 시설방문봉사, 문화체험 등
- 일시 : 4주 토요일, 10시~12시
- 문의 : 동래구자원봉사센터 ☎ 526-1430

■ 신학기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 기간 : 6개월 이상(한학기) 또는 일회성 활동
- 혜택 : 사회봉사학점 인증서 발행, 자원봉사시간 평생관리, 취업시 경력증명서 발행, 각종 교육 및 행사 초대, 친목도모 및 사회참여 기회

○영역 : 교육,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지역사회, 업무지원

○문의 : 사상구자원봉사센터 ☎ 309-5662

■ 장애인체험교육 도우미 모집

- 일시 : 4/22(일), 9시~15시
- 장소 : 성남초등학교(부산진시장 옆)
- 인원 : 10명(선착순)
- 문의 : 사하구자원봉사센터 ☎ 292-2550

■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

- 내용
 - ① 이·미용(2주 화, 10시~14시)
 - ② 수지침(2·4주 금, 11시~13시)
 - ③ 노래교실(월, 10시~11시30분)
 - ④ 요가교실·스포츠댄스교실(화, 10시~11시, 14시~15시)
 - ⑤ 노인상담(월~금, 10시~17시)
- 대상 : 60세 이상 어르신
- 문의 : 수영구자원봉사센터 ☎ 752-8766

■ 자원봉사자 차량 무상 순회점검 서비스

- 일시 : 상시접수
- 대상 :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등록 자원봉사자
- 문의 : 연제구자원봉사센터 ☎ 862-0592

■ 2007조선통신사 서포터즈 모집

- 기간 : 4/6(금)까지
- 분야 : 우정견기행사, 행렬진행, 진행, 수송, 통역, 취재 기록, 기타
- 인원 : 총243명
- 장소 : 용두산공원 및 부산시내 일원
- 문의 : 조선통신사 사무국 ☎ 816-3371

○영아원·재활원봉사(수시) : 나들이(차량), 병원동행 ○공공기관 업무보조(수시)

- ♣ 수영구자원봉사센터 ☎ 752-8766
 - 목욕봉사(월1회) : 노인시설 어르신 목욕봉사(여)
 - 노인병원 여가 프로그램 진행 봉사(월1회) : 종이접기, 레크리에이션, 다도 등
 - 장애인봉사(수시) : 병원·업무시 이동안내 및 차량봉사
 - 사진촬영(수시) : 행사사진 촬영
- ♣ 연제구자원봉사센터 ☎ 862-0529
 - 홀로어르신택 사랑의 빵배달(주1회)
 - 녹산희집 홀로어르신 무료중식제공 도우미 : 수요일(마지막주 제외), 11시~14시



2007 광주광역시자원봉사 정·책·토·론·회

오는 10월 8일부터 7일간 개최되는 제88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지난 3월 9일 광주시 자원봉사센터 주최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책은 그 자료집으로 자원봉사 중심의 시민참여로 WC, AG, APEC정상회의 등을 성공적으로 치룬 부산시의 사례 및 각종 방안 등이 실려 있다.

- 펴낸곳 : 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
- 분량 : 116쪽
- 내용 : <주제발표>
- 시민의 지역대형행사 참여와 자원봉사 활성화
<토론 및 사례발표>



봉사차 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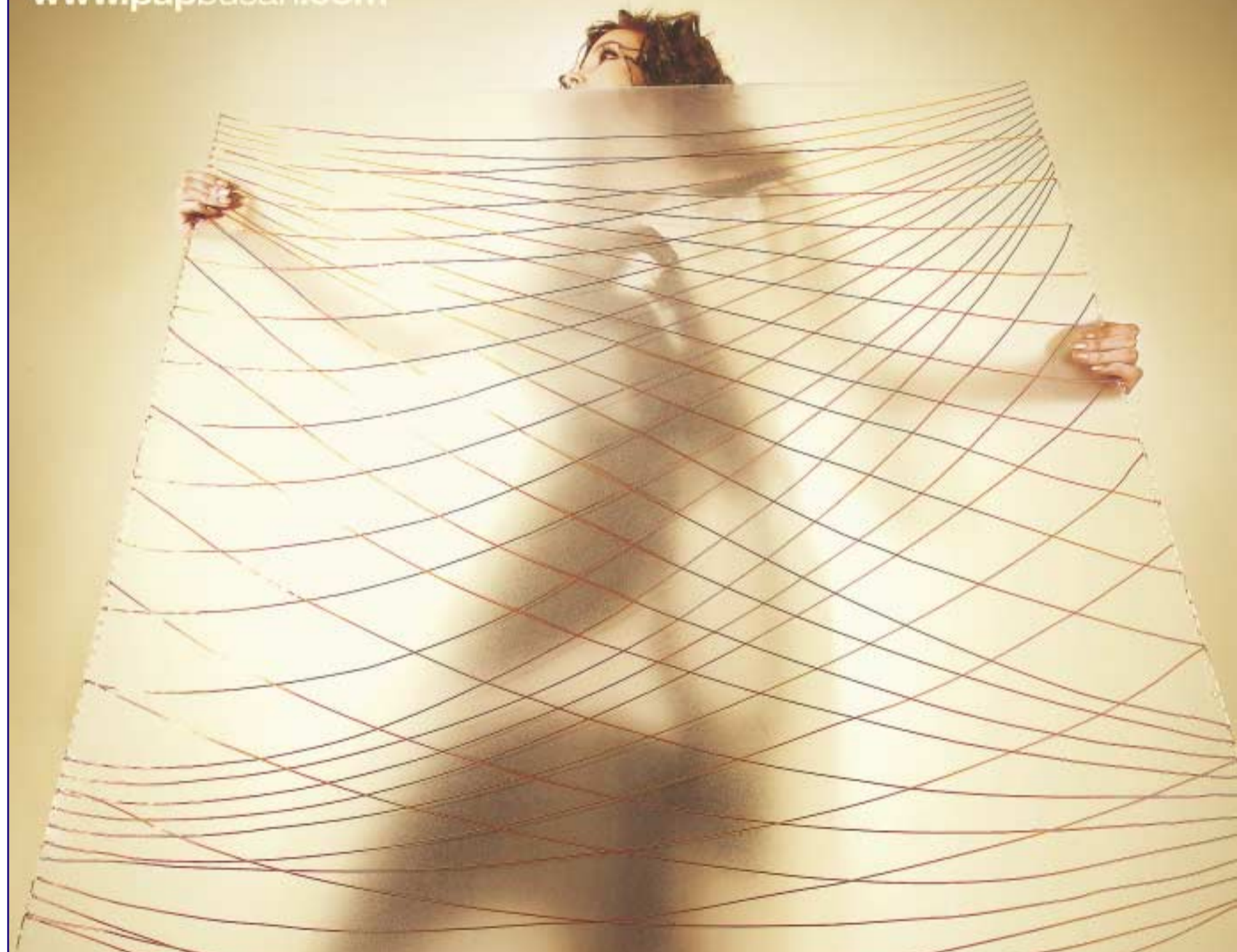
- ♣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 ☎ 864-1365
 - 전문봉사단 : 외국어, 의료, 문화예술분야 등
 - 장애인 나들이 봉사(월1회) : 소금꽃봉사단
 - 재난복구봉사(수시)
- ♣ 사하구자원봉사센터 ☎ 292-2550
 - 멘토링학습법으로 청소년 학습지도(수시)
 - 유아 돌보기(주2회)
 - 경로당 주변 환경정화(수시)
- ♣ 서구자원봉사센터 ☎ 256-5870

Prêt-à-PorterBusan

2007Fall&WinterCollection

프레타포르테부산

Apr.12(Thu)-Apr.14(Sat)
BEXCO(Convention Hall 3F)
www.papbusan.com



12.Apr(Thu)

13:30 SeoSoonNam 서순남
15:00 ChiYuki 치유키
16:30 ChristianWijnants 크리스티안 뵘안츠
18:00 LeeYoungHee 이영희

13.Apr(Fri)

13:30 LieSangBong 이성봉
15:00 Steve J & Yoni P 스티브제이 & 오톤이피
16:30 LeeHee Soon 이희순
18:00 ChangKwangHyo 창광효

14.Apr(Sat)

13:30 GaspardYurkievich 가스파르 유르키에비치
15:00 MaryMa 메리마
16:30 ChoiBumSeok 최범석

11:00 Trend 트렌드의 FirstviewKorea
12:30 Last for one B-boy공연

11:00 Trend 트렌드의 Promostyl



주최 부산광역시 부산섬유판문산업연합회 부산패션협회 후원 kotra BEXCO MODEL CENTER 호원 신업사정부 문화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미디어캐쉬 매일경제 mbn arirang YTN STAR Gtv 동양TV ETN 24TV MOGA 행사문의 Model Center Prêt-à-PorterBusan 기획운영팀 101-525-0899 / 101-740-0872 Hair&Make-up 후원 부산지방법원 (주최처)